

2023 초교 학생평가 기본계획 수립

도교육청, 학생 개개인 성장에 중점... 에듀테크 활용 등으로 평가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기준 도달 정도를 측정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교육과정-수업-평가 과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중심 미래교육' 슬로건에 맞춰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에듀테크 활

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교사들은 서술형과 논술형,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식과 이해력 등 인지적 측면은 물론이고, 태도와 가치관 등 정서적 측면까지 두루 감안한 균형 잡힌 평가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습량이 많아지는 4~6학년의 경우 교사들이 학습 중 수시로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측정하는 형성평가와 일정 기간 학습 후 교육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확인하는 총괄평가를 권장하기로 했다. 평가 방법이나 시기 내용 등은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이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평가 결과 안내는 학기별로 2회 이상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마련한 학생평가 계획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평가 지원단을 꾸려 연수와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장은 "2023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학생들의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활동과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튼튼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집합교육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13-24일 실시... 올해 위탁 운영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원장 백승우)은 13~24일까지 진수당 바오로 홀에서 제1회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매년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을 실시해 식물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이 이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백승우 원장은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식물검역 전반에 관한 이해를 통해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해 국가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더불어 현안해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검역관 배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에 선정, 경북대 전남대 등과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된 특수대학원이다. AI 기반 병해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농작물 병해충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헌법재판 경연 '금상'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배경석, 김윤수, 장진백 학생이 팀을 이룬 '인의예지' 팀이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최종 본선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 대회는 올해 9회를 맞이한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 팀 165명이 참가했으며, 8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 변론능력을 겨루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올해 최종 본선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개 팀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개 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1개 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1개 팀이 올랐으며, 지방 대학으로는 원광대가 유일하게 본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원광대 '인의예지' 팀은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법조인이 되자는 뜻으로 팀명을 정해 청구인 측(위헌) 변론을 맡아 1차 변론에 이어 최종 변론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금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김윤수 학생은 개인 MVP 상인 '우수변론상'까지 받아 의미를 더했다.

/역산=이재춘 기자



우석대학교가 지난 8일 전주 데메이호텔에서 LINC 3.0 사업의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산학협력 한마당 행사를 연가운데, 남천현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NC 3.0 주요 성과 공유 확산

우석대, 산학협력 한마당 행사... 우수사례 발표 등 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 8일 전주 데메이호텔에서 LINC 3.0 사업의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 산학협력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천현 총장과 오석흥 진천캠퍼스 부총장, 교무위원, 교직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가족회사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산업체 간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산학연 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8회 캡스톤 및 어드벤

처디자인 경진대회 시상, 우수 가족회사 공로패 전달, △LINC 3.0 사업 소개 및 주요 성과 보고 △산학협력 우수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석 단장은 주요 사업성과 발표에서 "지난해 우리 사업단은 대학의 특화 분야인 '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스마트관광'을 중심으로 전국 200여 개 기업과 산학공동기술개발 및 산업체 공동연구, 기술이전, 맞춤형 취업연계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시제품 발표에서는 박윤상 피루케이바이오(주) 대표가 '코티드 마이크로 연질 캡슐의

제조 기술 개발을, 기업연계 캡스톤 디자인 시제품발표에서는 임광희 전기자동차공학부장이 '경량화 풍력 카본 블레이드 개발'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이와 함께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가족회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16개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홍보패널과 시제품 11건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천현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대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가족회사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하고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가족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9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5개 대학(군산대·예수대·원광대·한일장신대·호원대)과 공동 교양교육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권역 5개 대학 공동 교양교육 운영

우석대, 군산대·원광대·호원대 등과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는 9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5개 대학(군산대·예수대·원광대·한일장신대·호원대)과 업무협약을 체결, 공동 교양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장과 박혜영 군산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현희영 예수대 교수처장, 전병훈 원광대 교수처장, 최혜정 한일장신대 교육혁신원장, 박진희 호원대 교양교육원

장을 비롯해 각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력대학 교양교육 학점교류 △공동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및 교양교육 인프라 교류협력 △우수 교양 교과목 공유 등이다.

조법종 교양대학장은 "대학 간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교양교육원 기초학습능력 강화 특강

간호학과 2학년 학생 대상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은 9일 박진아 교수(간호학과) 초청, 비대면으로 2022학년도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학의 학문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 이론들을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기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특강으로 전공 관련 기초 교과목들에 대해 기초실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전공 학습에 대한 학습 효율이 높아지고 전공 기초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강을 주관한 박진희 교양교육원장은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되는 특강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학교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8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 적극 협력

군산대-탄소진흥원, 탄소복합재 연구협력 '맞손'

국립군산대학교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8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풍력,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탄소복합재에 대한 연구협력 및 인적 교류를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협력하여 최대 연계효과를 내기로 하였다.

협약의 골지는 △풍력,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산분야 탄소복합재 연구협력 및 인적 교류 △연구시설, 신뢰성평가장비 등 인프라 공동 활용 협력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탄소소재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기술 상용화 지원, 창업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군산대학교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재원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이날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협력 기반이 더 단단해져서 본격적인 협력관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과 연구기관은 미래인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및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 협약이 탄소소재 융복합 분야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원장은 "우주항공방산 분야는 고기능성의 경량소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만큼 탄소복합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이번 협약이 탄소복합재 기술개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인재 발굴 및 육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탄소복합소재 분야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이재춘기자

도교육청, 초등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4학년생 1만4485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월 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만4485명에게 맞춤형 구강건강 진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라북도치과사회와 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초중환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교사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대표, 전북치과사회와 차례로 협의회를 갖고, 세부 운영사항 등을 논의한 후 2월 중에 추진계획 고시 및 교육지원

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검사,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치아우식 초기치료, 구강보건교육 등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초등 4학년 학부모 등 보호자가 협약 체결·지정된 도내 치과 병(의)원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1인당 4인원 이내로 지원된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과 구강건강 유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8~9일 이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진행된 LINC STAR 컨소시엄 사업성과 공유·확산 포럼에 참가했다.

전주비전대, LINC STAR 컨소시엄 사업성과 공유 포럼 참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8~9일 이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진행된 'LINC STAR 컨소시엄' 사업성과 공유·확산 포럼에 참가했다.

'LINC STAR 컨소시엄'은 연성대학교를 회장대학으로 선출해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역별 전문대학 6개교가 실질적인 공유·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문식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업협업센터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유사 IC간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6개 대학 토론회 이외에 실질적인 공유·협력 성과 확산이라는 컨소시엄 결성 목적에 걸맞게 각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리빵 경연대회와 AI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LINC STAR 컨소시엄'을 통해 시도된 사업성과 공유·확산 포럼과 공동교육프로그램은 LINC 3.0 사업 대학간의 공유·협업의 모범사례"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학 간 실질적인 공유·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사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